

산란실용계(CC)는 결코 종계가 될 수 없다

문 정 진 전국토종닭연합회 총무



먼저 정부에서 종계장, 부화장에 대한 가축 전염병 등 질병관리를 강화하여 난계대 질병인 추백리, 가금티푸스 등 세균성질병을 최소화시키려는 의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종자법 기준에 의하여 농가는 건강하고 우량한 병아리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초생추를 생산하는 종계, 부화장업체는 난계대 질병이 없는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1987년 12월 28일 닭(종계)일반검정세부실시요령을 잘 만들어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종계 검정방법은 없어지고, 1980년대 후반부터 2004

년 10월 30일까지 삼계탕을 만들기 위해 산란계 우×육용송을 교배하여 병아리를 생산했고 우리나라 굴지의 삼계, 육계계열사, 부화장, 종계장, 산란계농장은 단 한 차례도 종계검정 및 신고도 하지 않은 채 1년에 1억 만개 이상을 불법으로 생산하여 난계대 질병을 전국에 전파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육용계, 산란계, 종계까지도 수직 수평으로 질병이 전파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양계농가가 희생되고 있는 것이 현 양계업계 현황이다.

어떻게 보면 몇 개의 계열사의 비양심적인 도덕성에 정부가 흔들린 결과 엄청난 국가적인 손

| 특집 · 종계장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시행을 앞두고 |



실과 수많은 농가들이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빚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누가 할 것인가?

정부인가?

백세미계열사인가?

부화장인가?

이 심각한 상황에 정부, 계열사, 백세미 유통, 부화장은 불감증에 걸린 듯 하여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산란계우 × 육용송을 통해 종란을 생산한 농가와 여기에서 생산된 초생추를 공급받아 사육한 농가이다. 물론 주변 농가들도 피해를 입었다.

또한 백세미를 장려하여 수많은 자금을 백세미

계열사에 지급하여 국가의 소중한 예산을 낭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2~3 계열사와 몇 개의 백세미 납품업자들은 배 좀 불렸을지 몰라도 현재 농가들은 막대한 피해로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가의 피해사실을 필자는 정확히 담할 수 있고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

2005년 3월 현재까지도 백세미를 생산하고 있는 많은 업체가 신고,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무차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양계산업의 현주소이다.

정부에서 5월 1일부터 종계·부화장 관리 방역 관리요령 시행을 앞두고 호응을 얻고 신뢰를 구축하려면 축산법시행규칙 제25조 2의1을 반드시 폐지하고 삼계를 생산하기 위한 종계도 종계와 “준” 하는 것이 아니라 종계와 “똑같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P.S로 생산해야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2장 25조 2의1이 존재하게 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설득력이 떨어 질것은 분명하다.

썩은 뿌리를 하루속히 없애고 정부에서 5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종계장, 부화장 방역을 강화한다면 질병이 줄어들고 현실성이 있다.

그러나 축산법 시행규칙 제2장 25조 2의1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 종계장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시행을 앞두고 · 특집 |

생각한다.

우리나라 모든 종계의 기초가 산란 실용계(CC)가 될 수 있을까?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질병이 양계산업의 모든 부분에 미친 영향은 참으로 참담했던 상황을 깊이 있게 교훈삼아야 한다.

WTO, FTA, DDA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양계 산업이 다 같이 잘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2장 25조 2의1을 폐지하여 종계의 틀을 학술적으로 바로 세워야하고 일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농림부에서 계획대로 구축하여 종계(PS)를 조절하여 GPS쿼터제, 산란 계쿼터제, 백세미쿼터제, 토종닭쿼터제를 실시한다면 종계 부화장에 대한 효율적인 질병관계 및 교

육홍보가 효과적이고 긍정적평가가 있을 것이다.

엄연히 산란 실용계(CC)는 종계가 아니다. 산란 실용계(CC) × 일명 토종수탉(↑)을 사육하는 불법자도 생겨나고 있다.

토종닭 종계는 100% 종계등록하도록 모든 종계장 및 부화장에 요청하였다.

농림부에서도 현실성을 바로 인식하시고 축산법시행규칙 제2장 25조 2의1을 폐지하여 질병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란계, 육계, 삼계, 토종닭 모든 산업이 발전되고 농가가 다 같이 잘살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혁명하고 지혜롭게 양계산업을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농림부 관계자의 양계전체 발전을 위한 진정한 용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양계**

생석회 ♠ 소석회

♣ 산성폐수 및 오수정화

♣ 축사소독 및 악취제거

♣ 충란 및 병원균 살균

♣ 유기질 분해촉진

♣ 산성 토양 개량(pH안정)

영월석회공업사

사무실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250번지
전화 : (033)372-5837, 5618, 팩스 : (033)372-5889
전화 : (033)372-5296, 6878, 야간 : (033)372-5293